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태도와 결혼적응

Parental strain, mastery, sex role attitude, and dyadic adjustment
after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dual earner family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고 선 주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Lecturer : Koh, Seonju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조사방법 및 절차 |
| II. 관련연구 고찰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I. 연구문제 | VI.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arental strain, mastery, sex role attitude and dyadic adjustment after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dual earner family. Using couple data from a sample of 284 dual earner couple, pair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e way ANOVA was us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wives and husbands in dyadic adjustment, physical strain, mastery, sex role attitude. Specially, couples experience more emotional strain than physical strain, and wives experience more parental strain than husbands.

2) Couple's parental strain is considered personal attribution rather than family one, but mastery is different.

3) Couple's psychological variables have an effect on the dyadic adjustment scores, especially husband's sex role attitude influences own dyadic adjustment and wife's dyadic adjustment. Wife's mastery also own dyadic adjustment and husband's dyadic adjustment.

I. 문제제기

부모기 전이는 개인과 가족체계의 두가지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부부의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기에 이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부모기 전이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고선주·옥선화, 1993a, 1993b, 1994, 1996; 양명숙, 1991; 이숙현, 1990; 박숙자, 1991)들을 통하여 부모기 전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선주와 옥선화의 연구(1996)에서는 二重 ABCX모델의 부모기 전이 적용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부모기 전이 연구에 이론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모델로서 부모기 전이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자원요인을 다루고 있는 연구(고선주·옥선화, 1996)에서 자원에 대한 관심은 도구적 자원에 국한되어 있었다. 二重 ABCX모델에서 자원이란 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에는 개인 구성원과 가족단위 그리고 공공사회의 특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원 요인중 부모기 전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가족 외부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가족원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모기 전이 과정의 외부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모기 전이후 부부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고선주·옥선화, 1996)에서 이 두 변수의 개괄적인 관계는 밝혀졌으나 두 가지의 개념을 혼용함으로써 독립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二重 ABCX 모델을 적용한 바 있는 연구(Hobfoll, Ritter & Shoham, 1991; McCubbin, Joy, Cauble, Comeau, Patterson, & Needle, 1980)들은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원으로 지배감을 지적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이를 살펴본 바가 없으므로 이 연구

에서는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 그리고 지배감이 각기 부모기 전이후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 특성 변수가 부모기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 성역할태도가 부모기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Barnett & Baruch, 1987; Pistrang, 1984)이 있어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성역할태도가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므로 성역할태도가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결혼적응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취업부부를 중심으로 앞서 지적인 심리적 특성 변수들인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결혼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단계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 신체적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태도, 결혼적응은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행연구(고선주·옥선화, 1993a, 1993b, 1996)에서 부부간에 다르게 나타난 부모기 전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정서적 긴장감, 신체적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태도의 부부간 유사성에 따라서 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긴장감이나 지배감, 성역할태도등의 변수들이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로서의 긴장감, 성역할태도와 지배감이 각기 독자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 바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부의 공동 특성으로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들이 전이후의 결혼적응에 독립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동

시에 다른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전이후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서의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규명해주고 학문적으로는 결혼적응 모델 구성을 위해, 그리고 실용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연구고찰

1. 결혼적응

결혼 적응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되어 왔고 많이 연구되어 온 분야의 하나이다. Adams(1980)는 결혼적응이란 각 배우자와의 결혼관계에서 순응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혼적응이 결혼만족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의 배우자는 광범위한 적응을 해야 하는 결혼관계에도 만족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배우자는 반대로 약간의 적응만 하면 되는데도 그 관계에 불만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응과 만족은 구별되는 개념(이미숙, 1990)이다.

결혼적응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이기숙(1984)은 부부가 갈등을 피하거나 해결해서 그 결혼에 만족하고 부부 상호간에 공통된 관심사와 활동등을 발달시킴으로써 결혼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한다고 느끼도록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결혼적응을 각기 결혼한 배우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결혼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숙현, 1988)이라고 보거나 부부간의 응답차이의 정도를 의견 일치도로 간주하여 이를 결혼적응으로 파악하여 서로 차이를 줄이는 과정으로 정의(김정원, 1987)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혼적응 개념은 결혼만족, 결혼행복, 결혼의 질, 결혼안정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규련(1992)에 의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결혼만족의 개념을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선호의 태도로 정의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결혼만족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결혼행복이란 개인의 충동, 희망, 기대 등이 적절히 충족되었을 때의 주관적인 느낌이며 결혼의 질은 결혼생활의 지속 정도인 양적 측면과 대비되는 부부관계의 질적 차원을 의미하므로 결혼적응보다 더 넓은 범주의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적응을 보는 방법에는 과정으로 보는지 아니면 상태의 질적 평가로 보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의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Spanier, 1976). 첫째는 상태보다는 과정으로 2인 적응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관점을 취하게 되면, 종단적인 연구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결혼적응을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둘째는 과정이 아닌 상태의 질적 평가로서 결혼적응을 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Spanier(1976)는 2인적응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라기 보다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적응이 질적인 영역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따라서 다음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인 과정으로서 정의하였다. 즉, 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2인간의 차이, ② 대인적인 긴장과 개인적인 불안, ③ 2인관계 만족, ④ 2인관계 응집성, ⑤ 2인관계가 기능하는 데에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일치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부부간의 일치, 만족, 응집성, 애정표현등 4개의 하위영역을 갖는 결혼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개발하였다.

결혼만족이나 질을 묻는 척도들은 Spanier의 DAS(Dyadic Adjustment Scale)이외에도 Roach등의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 Hayes와 Stinnet의 MYLSS(Middle Years Life Satisfaction Scale) Olson 등의 ENRICH(Enriching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 Happiness)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주로 결혼적응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DAS이다(이미숙, 1990). 또한 DAS는 부부간의 적응을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척도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위영역별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ier, 197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AS를 이용하여 부모기 전이 후 결혼적응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부모기 전이와 결혼적응

서구에서의 부모기 전이 연구는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기 전이 연구는 자녀의 출산이 애정으로 결합된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가정하에 시작되었다. 국내의 부모기 전이 연구는 서구와는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경향 자체는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

부모기 전이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부부관계의 변화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녀로 인한 기존 부부관계 적응을 살피기 위한 결혼적응 연구(고선주·옥선화, 1993a; 이숙현, 1988; 1990; Belsky, Lang & Rovine, 1985; Belsky & Rovine, 1990; Waldron & Routh, 1981; Wallace & Gotlib, 1990)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관계를 DAS(고선주·옥선화, 1993a; Belsky, Spanier & Rovine, 1983; Wallace & Gotlib, 1990)나 Locke-Wallace 결혼적응 척도를 이용(Waldron & Routh, 1981)하거나 결혼의 질 개념을 이용(Belsky, Lang & Rovine, 1985; Belsky & Rovine, 1990)하여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인의 경우에 결혼의 질이나 결혼적응이 감소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우는 거의 임신부터 짧게는 6개월(Wallace & Gotlib, 1990), 길게는 3년(Belsky & Rovine, 1990)에 이르기까지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는 일부 연구(양명숙, 1991; 고선주·옥선화, 1993b)에서 만이 임신과 출산후의 비교를 통하여 추적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같은 부모기 전이후의 결혼적응 자체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부부관계를 가사분담과 연관지어 분석을 하거나(박숙자, 1991; Cowan & Cowan, 1988) 전이과정에서의 부부관계를 문헌고찰을 통해 살피는 연구(Belsky & Pensky, 1988; Grossman, 1988)등도

있다.

이처럼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결혼적응등으로 살피는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핵심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부모기 전이후의 상황적인 맥락에 관심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론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어 왔다(고선주·옥선화, 199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기 전이 연구의 중심인 부부관계의 결혼적응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인 부부의 심리적인 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전이후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3.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모로서의 긴장감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다루는 데는 국내의 연구들과 서구의 연구들이 약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의 애정이 가족 유지의 근원이 되는 서구 사회에서 첫자녀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는 가족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큰 변화였기 때문에 주로 부부관계가 얼마나 악화되는가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긴장감에 관한 연구는 관심을 덜 받거나, 관심을 가진다고 하여도 부부관계의 약화와 연관지어 부모기 전이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자녀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나 정서적 긴장감등에 관심을 보이는 연구들(Goldsteen & Ross, 1989; Scott & Alwin, 1989)로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연구들의 초점은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에 맞춰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남녀가 부모기 전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는 부모가 됨으로써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이나 부부관계의 약화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즉, 국내의 연구(이숙현, 1988; 1990, 박숙자, 1991)들은 부모기 전이에 약간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직접적으로 연구에서 어떠한 시

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기 전이의 긍정적인 입장에 기반하여, 연구대상자들이 부모기 전이를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신체적인 부담감의 입장에서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에 기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며느리의 역할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계를 계승할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부모기 전이를 통하여 불안정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는 계기가 되므로(유안진, 1990: 1-120), 여성의 경우 역할전이를 더 기대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됨에 대한 수용과 실제적인 자녀양육과는 별개이므로 그로 인한 신체적인 긴장감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결국, 지금까지의 부모로서의 긴장감에 관한 연구들이 이 같은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점이 선행연구들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부모로서의 긴장감에 대한 규명없이 임의로 접근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부모가 되어 느끼는 정서적인 긴장감과 실제적인 자녀 양육에서 오는 신체적 긴장감을 분리하지 못하고 혼용하여 살펴봄으로써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로서의 긴장감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선주와 옥선화의 연구(1996)에서 부모기 전이 후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잠재변인으로 부모기 전이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의 두 가지 개별적인 긴장감이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긴장감을 분리하여 이들의 독자적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성역할태도

성역할이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권 내에서 여자 또는 남자로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여러 자질 혹은 성 유형화 과정을 통하여 성별에 따라서 습득하게 되는 성격특성, 태도, 선호경향, 행동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옥선화·정민자, 1992). 이러한 성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

들중 주로 부모기 전이후의 결혼적응이나 긴장감과 연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남녀의 역할분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성역할태도이다. 즉 역할분화에 대한 성역할태도란 남성, 여성에게 기대된 행동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중에서, 남성과 여성역할의 분화를 지지하는 것은 '전통적 성역할태도'이며, 남성과 여성역할간의 융통성과 역할공유를 지지하는 것은 '근대적 성역할태도'로 본다(옥선화·정민자, 1992).

이러한 성역할태도와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들은 주로 80년대에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이러한 경향을 정리한 연구(대한가정학회, 1990)을 살펴보면,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일관되게 남편이 근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전통적인 경우보다 부부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가지는 남편이 역할의 융통성을 보일 때 남편보다 근대적인 성향을 보이는 부인 집단과의 역할갈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적응과의 관계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전통적인 태도일 때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인다는 결과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등이 혼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부부단위로 분석한 결과는 부부의 태도에 따른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대한가정학회, 1990).

성역할태도를 부모기 전이에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Pistrang(1984)은 자신의 성역할태도가 부모가 되는 중요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그에 따른 긴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성역할태도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성역할태도도 중요한데 Barnett과 Baruch의 연구(1987)를 보면, 배우자의 성역할태도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부의 성역할태도 뿐 아니라 부부의 성역할태도 일치가 부모기 전이후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oss, Mirowsky와 Huber(1983)에 의하면 부인의 취업지위가 부부의 선호에 일치할 때 부부가

모두 덜 우울하다고 하여 이러한 태도 일치 여부가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모기 전이 연구에서 결혼적용과 성역할태도와와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3) 지배감

지배감에 관한 연구(Hobfoll, Ritter & Shoham, 1991; Pearlin et al, 1981)들은 지배감이 개인적 자원의 일종으로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二重 ABCX모델로 설명 가능한 부모기 전이 과정도 지배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은 부모기 전이 결과와 연관지어 살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Pearlin과 Schooler(1978)은 자아 안에 존재하면서 스트레스 결과를 줄일 수 있는 3개의 심리적 자원을 규명하였는데 그것은 자아에 관한 태도의 긍정성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과 부정적 태도를 말하는 자아훼손, 그리고 인생기회의 통제정도를 나타낸 지배감이 다. 또한 Pearlin등(1981)도 자아개념중에서 지배감과 자아존중의 2요소가 인생긴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Hobfoll, Ritter와 Shoham(1991)은 지배감을 자아 개념의 중심적인 것으로 스트레스 결과의 강력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용에서 지배감이 자원으로 작용하여 결혼적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앞서 심리적 특성 변수로서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 지배감과 성역할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한 변수가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나 아직은 이러한 관계가 밝혀진 바 부족하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변수들과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부의 부모로서의 긴장감, 성역할태도와 지배감, 전이후 결혼적용이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피고, 부모로서의 긴장감, 성역할태도와 지배감 유

사성에 따라 결혼적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며, 이들 변수들이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용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태도와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용은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성역할태도와 지배감 유사성에 따라서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과 성역할태도, 지배감은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V.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조사 대상은 첫 자녀를 출산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부부로 하였다. 또한 둘째 자녀를 임신중이거나 이미 둘째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조사 대상중 부부가 모두 취업하고 있는 부부를 284쌍, 즉 총 568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부부취업가족의 선정 기준은 부인의 직업과 교육수준의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첫번째로 조사대상자 부인의 직업을 전문·관리직, 사무직, 생산·서비스직의 세가지 군으로 나누어 이러한 직업군이 고르게 표집되도록 하였으며 두번째는 부인의 교육수준을 고졸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역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의 문항 내용을 검토하고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20일간 취업부부 45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회수된 질문지 41쌍 중에서 자녀의 연령이 12개월을 넘거나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3사례를 제외하고

난 후 38쌍을 분석해 보았다.

예비 질문지의 내용을 각 척도간 신뢰도와 문항간 상관관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될만한 점이 나타나지 않아서 예비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질문지를 가지고 1995년 5월 1일 부터 6월 5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6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318 쌍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중에서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 11쌍,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12개월을 넘은 23쌍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4쌍, 568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종속변수

(1) 결혼적응

결혼적응의 측정을 위해서는 Spanier의 DAS (Dyadic Adjustment Scale)를 사용한 선행연구(고선주·옥선화, 1993a; 1993b; 1994)을 위주로 하여 연구 내용에 적합하게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남편용과 부인용 질문지 모두 응집과 만족 일치, 애정표현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기 응집영역 5문항(점수범위 0-24), 만족영역 10문항(점수범위 0-50), 일치 영역 13문항(점수범위 0-65), 애정표현 4문항(점수범위 0-12)의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혼적응 총 점수는 0점 부터 151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은 것이다.

2) 독립변수

(1) 부모로서의 신체적인 긴장감

부모로서 느끼는 신체적인 긴장감 척도는 선행연구(고선주·옥선화, 1994; 박숙자, 1991; 이숙현, 1990; Crouter et al, 1987; Kamo, 1988)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실제적인 자녀양육 영역인 '밤에 일어나기', '얼려주기', '세탁', '목욕', '수유', '아플때 돌보기'의 여섯 영역과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적인 피도로를 측정하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늘 피곤하다.', '자주 피곤하다.', '약간 피곤하다.', '거의 피곤하지 않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

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구성하였다. 따라서 총 8문항, 8점부터 32점까지 점수가 분포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다.

(2) 부모로서의 정서적인 긴장감

부모로서의 정서적인 긴장감은 Scott와 Alwin(1989)의 부모로서의 긴장 척도와 인생 긴장 척도를 위주로,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다룬 선행연구(고선주·옥선화, 1994; 이숙현, 1990; Goldsteen & Ross, 1989)을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모두 '항상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8문항으로 최하 8점부터 최고 32점까지 분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을 높게 느끼는 것이다.

(3)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란 남성, 여성에게 기대된 행동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옥선화·정민자, 1992)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녀의 역할분화에 관한 태도중 Pleck(1985)과 Kamo(1988)가 사용한 성역할태도 척도 중에서 취업부부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성역할태도를 묻는 문항은 모두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6문항으로 최하 6점부터 최고 30점까지 분포한다. 성역할태도 점수는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는 것이다.

(4) 지배감

지배감이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지배를 묻는 것으로서 Pearlman등(1981)이 사용한 지배감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를 묻는 7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최하 7점부터 최고 35점까지 분포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배감이 높은 것이다.

3. 신뢰도와 타당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척도는 박사과정 이상의 가족학 전공분야 전문가 3인에게서 질문지 문항을 검토받았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박사학위소지자 4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아 재수정·보완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혼적응 척도의 경우 부인용은 응집 .82, 만족 .85, 일치 .85, 애정표현 .64이며 남편용은 응집 .83, 만족 .82, 일치 .83, 애정표현 .67이다. 정서적 긴장감은 부인용 .75, 남편용 .77, 신체적 긴장감은 부인용 .81, 남편용 .80이다. 성역할 태도는 부인용이 .71 그리고 남편용이 .68이었다. 지배감척도의 경우 부인용은 .68, 남편용은 .70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었다.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이 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인의 연령은 23세부터 34세까지 분포하며 평균연령은 28세(표준편차 2.45)로 과반수가 넘는 68.2%가 25세에서 29세에 해당한다. 남편의 경우는 22세부터 38세의 범위로 평균은 31세(표준편차 2.63)로서 62.8%가 30세에서 34세 사이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부인은 고졸이 37.1%인 103명, 대졸이 51.4%인 143명, 대학원졸 이상이 4.0%인 11명, 전문대졸이 7.6%인 21명이다. 남편의 경우는 부인 보다 대졸이 더 많아 고졸이 18.3%인 50명, 대졸이 62.3%인 170명, 대학원졸 이상이 17.2%인 47명, 그리고 전문대졸이 2.2%인 11명이다. 조사대상자 직업은 부인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25.9%인 72명, 사무직이 45.3%인 126명, 그리고 생산·서비스직이 28.8%인 80명이다. 남편의 경우는 전문·관리직이 33.3%인 89명, 사무직의 비율이 52.8%인 141명, 그리고 생산·서비스직이 13.9%인 37명이다. 평균 소득은 부인은 30만원부

터 330만원까지로 평균소득은 109만원(표준편차 46.0)이며, 남편의 경우는 2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평균 145만원(표준편차 75.35)이다. 가족 형태는 73.1%인 198 가족이 부부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고, 부인을 기준으로 할때 시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8.1%인 49가족, 친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4.1%인 13가족, 형제·자매등과 동거하는 경우도 4.9%인 14가족이다.

5. 자료 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평균과 빈도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1인 부부간의 차이는 쌍체 t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2는 집단에 따른 일원분산분석과 추후검증을 통하여 집단간에 차이가 의미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3은 회귀분석시 각 변수군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결정계수의 증가분을 살펴보았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기 전이후의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태도와 결혼적응에서의 부부간 차이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이 후 결혼적응과 부모로서의 긴장감, 성역할태도와 지배감에 있어서 부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적응은 부인과 남편의 점수가 각기 107.85와 111.24($t=-4.27$, $p<.001$)로 결혼적응 점수들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인보다는 남편의 점수가 더 높다. 이러한 부모기 전이후의 결혼적응 경향은 부모기 전이후 3개월된 시점에서의 결혼적응을 살펴본 선행연구(고선주·옥선화, 1993b)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기 전

〈표 1〉 부부간 쌍체 t검증 결과

변 수	부부	N	평균(범위)	표준편차	쌍체 t
결혼적응	부인	276	107.85(0-151)	15.46	-4.27***
	남편	276	111.24(0-151)	14.11	
정서적 긴장감	부인	283	17.79(8-32)	3.53	8.38***
	남편	283	15.70(8-32)	3.50	
신체적 긴장감	부인	277	23.31(8-32)	4.86	5.95***
	남편	277	21.10(8-32)	4.72	
성역할태도	부인	284	20.09(6-30)	4.59	14.32***
	남편	284	15.65(6-30)	4.32	
지배감	부인	280	22.23(7-35)	4.54	-6.49***
	남편	280	24.60(7-35)	4.70	

*** p < .001

이후의 결혼적응은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결혼적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긴장감의 경우는 신체적 긴장감과 정서적 긴장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부부가 그러한 긴장감을 유의하게 다르게 느끼는가를 검증하여 보았다. 〈표 1〉를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긴장감의 경우에는 부인과 남편의 점수가 각각 23.31과 21.10($t=5.95$, $p<.001$)으로 중간값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신체적인 긴장감을 느끼며, 남편보다는 부인이 신체적인 긴장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서적 긴장감의 경우는 부인이 17.80 남편이 15.70($t=8.38$, $p<.001$)으로 중간값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의 긴장감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차이를 보면 높은 수준의 긴장감은 아니더라도 남편보다는 부인이 정서적인 긴장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보여주는 결과에 대하여 두가지 방향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취업 부부들이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정서적 측면보다는 신체적 측면에서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결과와 외국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던 부모기 전이 연구 결과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즉, 국내의 연구(이숙현, 1988; 1990)에서는 부모기 전이가 힘이 들지만 부부관계를 그리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되어 왔고 외국의 연

구(Belsky, Lang & Rovine, 1985; Belsky & Rovine, 1990; Wallace & Gotlib, 1990)에서는 부부관계가 악화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무엇이 힘이 드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부모가 됨으로 해서 정서적 긴장감을 느끼기 보다는 부모 노릇을 하는데서 오는 신체적 긴장감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다. 즉, 힘은 들지만 이러한 신체적 긴장은 부부관계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 수 있는 요인인 것이다. 반면,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보고 자녀의 존재를 부부관계에 대한 침입이라는 관점으로 연구하는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 노릇에 대한 정서적 측면에서의 긴장감이 더 많이 노출되기에 부부관계가 악화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숙자의 연구(1991)에서 대부분의 부모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어려움이 아기에 대한 경험부족과 기대와 양육의 역할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라 해석한 것보다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응답차이에 대해서 실제적인 참여 정도와 역할의 분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러한 경향의 차이가 실제적인 양육 행위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부모기 전이후 3개월의 시점에서 부부간의 자녀양육 분담정도를 살

핀 연구(고선주·옥선화, 1994)와 첫자녀 돌보기를 살핀 박숙자의 연구(1991)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어 부모기 전이 후의 자녀양육은 주로 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로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부인이 부모로서의 긴장감도 더 많이 느낀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 양육에서의 차이도 반영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역할분담에서 자녀양육은 부인의 몫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모 역할에서의 긴장감을 부인이 더 느낀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성역할태도는 부인과 남편이 각기 20.09와 15.65($t=14.32$, $p<.001$)로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보다 더 근대적인 경향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이 가족부양을 그리고 여성이 자녀양육을 맡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이미 탈피해 있는 집단으로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부양자역할을 어느 정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근대적인 경향을 띄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역할태도 척도 자체가 사실상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문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다.

네째, 부인과 남편의 지배감은 각기 22.23과 24.60($t=-6.49$, $p<.001$)로 남편의 지배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배감이 높은 사람이 환경의 사회적 측면을 성공적으로 조작하는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인생에 대한 도전에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한다고(Hobfoll et al, 1991)볼 때 남편들의 지배감이 더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부모가 된 남성과 여성의 성장과정에서 지배감을 발휘하고 훈련받을 기회가 남성이 더 많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비록 여성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계획에 의하여 부모기 전이를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존재로 인하여 여성의 생활이 통제되고 제약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성의 경우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지배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지배감 영역에서의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부부의 심리적 특성 유사성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다음의 <표 2>에는 연구문제 2을 밝히기 위한 부부의 부모로서의 긴장감, 성역할태도와 지배감 성향에 따른 집단간 일원분산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부부간의 부모로서의 긴장감, 성역할태도와 지배감 유사성 경향은 빈도분포에서 각기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하는 이들을 상대로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 있는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의 경우 긴장감이 높은 집단이란 정서적 긴장감의 전체 빈도분포 중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를 지닌 경우이며 긴장감이 낮은 집단이란 하위 25%에 해당하는 점수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남편과 부인의 정서적 긴장감이 모두 낮다는 것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하위 25%에 해당되는 부부를 지적하는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정서적 긴장감 유사성의 경우 남편의 결혼적응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부인의 결혼적응에 있어 차이가 나는 집단은 집단1과 4로서 부부의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이 모두 낮은 경우가 정서적 긴장감이 모두 높은 집단보다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부모로서의 신체적 긴장감의 부부 조합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적응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부인의 결혼적응의 경우 부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인의 신체적 긴장감이 높은 경우와 부인의 신체적 긴장감이 낮은 경우가 결혼적응에서 차이가 있어 부인의 신체적 긴장감이 낮은 두 집단 1, 2가 그렇지 않은 집단 3, 4 보다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라 함은 전체표본이 된 남편의 성역할태도 점수중 하위 25%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인 경우이며, 반대로 근대적이라 함은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를 지닌 경우이다. 그러므로 만약 남편이 근대적이며 부인이 전통적인 집단은 남편은 성역할태도 점수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에

〈표 2〉 부부간의 부모로서의 긴장감, 성역할태도와 지배감 유사성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집단(남편-부인)	N	평균	F비	duncan
부인의 결혼적응	정서적 긴장감	1 남편저-부인저	37	110.03	3.42*	a
		2 남편고-부인저	11	111.00		
		3 남편저-부인고	13	101.15		b
		4 남편고-부인고	31	98.77		
남편의 결혼적응	정서적 긴장감	1 남편저-부인저	37	114.49	2.43	a
		2 남편고-부인저	11	105.73		b
		3 남편저-부인고	13	115.23		
		4 남편고-부인고	30	105.83		
부인의 결혼적응	신체적 긴장감	1 남편저-부인저	28	118.14	9.42***	a
		2 남편고-부인저	19	116.05		a
		3 남편저-부인고	15	100.47		b
		4 남편고-부인고	23	100.22		b
남편의 결혼적응	신체적 긴장감	1 남편저-부인저	28	107.84	3.51*	a
		2 남편고-부인저	19	112.07		b
		3 남편저-부인고	15	108.09		
		4 남편고-부인고	23	112.44		b
부인의 결혼적응	성역할태도	1 전통적 -전통적	37	106.22	.46	
		2 근대적 -전통적	16	110.88		
		3 전통적 -근대적	14	114.50		
		4 근대적 -근대적	34	109.53		
남편의 결혼적응	성역할태도	1 전통적 -전통적	36	110.53	.21	
		2 근대적 -전통적	16	118.75		
		3 전통적 -근대적	14	112.14		
		4 근대적 -근대적	35	116.00		
부인의 결혼적응	지배감	1 남편저-부인저	21	95.43	7.77***	a
		2 남편고-부인저	18	104.00		a
		3 남편저-부인고	13	111.46		b
		4 남편고-부인고	28	116.75		b
남편의 결혼적응	지배감	1 남편저-부인저	21	104.57	4.87**	a
		2 남편고-부인저	18	110.89		a
		3 남편저-부인고	13	107.54		a
		4 남편고-부인고	28	119.50		b

*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부인은 하위 25%에 해당하는 점수에 속한 부부로 이루어진 조합을 뜻한다.

부부의 성역할태도 유사성에 따라 결혼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본 〈표 2〉의 결과는 성역할태도 유사성에 따라 결혼적응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부가 같은 성역할태도를 갖는지 아니면 다른 성향의 성역할태도를 갖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연구(Ross et al, 1983)에서 부부간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선호 일치가 중요하게 나타난 것

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의 표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수를 늘리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성역할태도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난 결혼적응은 점수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표집의 규모를 늘리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같은 작업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더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표 2〉의 세 번째 부분은 지배감을 동일한 방식으로 상위 25%인 집단과 하위 25%에 속하는 집단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성향에 따라 지배감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도 구분한 것이다. 표를 보면, 부부의 지배감에 따라 집단간의 결혼적응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의 지배감이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는 어떠한 다른 경우보다 대체로 부부의 결혼적응이 높다. 특히 표에서 제시된 결과가 소규모의 대상을 분석하였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좀 더 대규모의 대상을 분석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바이다.

여기에서 제기된 모든 변수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보자면 대략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성역할태도의 경우 부부 특성의 조합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부모로서의 정서적, 신체적 긴장감의 경우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집단간의 개별적인 차이에 집착하기 보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긴장감의 경우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결혼적응의 차이가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지배감의 경우에는 독특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 모두의 지배감이 높은 경우에 다른 어떠한 집단보다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배감의 경우 배우자의 특성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배우자의 지배감이 낮은 경우에 불

만족스런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연구만을 가지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태도와 결혼적응

연구문제3인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과 성역할태도가 결혼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부인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고선주·옥선화, 1996)을 근거로 하여 부모로서의 긴장감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결혼적응에 대한 회귀식을 구성한 것이 모델 I 이며, 그 후에 성역할태도와 지배감이라는 자신의 심리적 특성 변수를 추가한 회귀식이 모델 II,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심리적 특성 변수를 추가한 것이 모델 III이다. 또한 각 모델에는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¹⁾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3〉에는 부인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 대한 회귀식 모델이 나타나 있다.

결과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부인의 경우에 있어서 부모기 전이후의 부모로서의 긴장감은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 모두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긴장감 중에서는 정서적 긴장감보다는 신체적 긴장감이 결혼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많이 느낄수록 결혼적응은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 본인의 성역할태도와 지배감을 추가한 모델 II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인 결정계수는 .17에서 .21로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배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배감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았다. 모델 III의 경우는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지배감이 추가된 모델로서 여기에서의 R²의 증가분 역시 3%

1) 회귀식에 포함된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의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가 .6이하로 나타나 회귀식에 독자적으로 포함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부인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 결혼적응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T	b	β	T	b	β	T
부인의 연령	.33	.05	.68	.21	.03	.43	.14	.02	.29
남편의 연령	-.52	.09	-1.13	-.52	-.09	-1.15	-.40	-.07	.90
부인의 교육수준	-.76	.09	-1.21	-.76	-.09	-1.21	-.80	.10	-1.30
남편의 교육수준	.25	.76	.32	.19	.02	.26	.06	.01	.09
부부의 소득	.01	.05	.85	.01	.06	.98	.01	.06	1.08
(부모로서의 긴장감)									
정서적 긴장감	-.84	-.19	-2.79**	-.66	-.15	-2.20*	-.72	-.16	-2.43*
신체적 긴장감	-.88	-.27	-4.03***	-.68	-.21	-3.08**	-.63	-.19	-2.89**
(본인의 특성)									
성역할태도				.04	.01	.18	-.13	-.04	-.60
지배감				.75	.22	3.48***	.71	.21	3.27**
(배우자의 특성)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55	.15	2.38*
배우자의 지배감							.30	.09	1.51
R ²	.17***			.21***			.23***		
R ² 의 변화량				.04**			.03*		

* p < .05 ** p < .01 ***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인의 결혼적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가지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 있어서는 부모로서의 긴장감뿐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각 모델의 결정계수가 의미있게 증가한 점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부모가 보유한 심리적 특성이 부모기 전이를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선행연구(고선주·육선화, 1996)에서 사회적 지원같은 도구적 자원이 부모기 전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특성 역시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취업부인의 경우에, 자신의 심리적 특성 뿐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도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적응이라는 것이 2인관계에서 파생하는 결과이니

만큼 앞으로의 부모기 전이 연구는 부부가 지닌 특성 모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에는 남편을 대상으로하여 분석한 모델이 제시되어 있는데 남편의 경우에는 앞서의 부인 모델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모델 I 을 보면 남편의 연령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쳐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변수를 추가한 모델 II, 모델 III에서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모델 II와 모델 III 모두 자신의 성역할태도와 지배감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그리고 지배감이 강할수록 자신의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부인 모델과는 달리 부모로서의 긴장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의 특성을 추가했을 때는 결정계수가 .07에서 .15로 의미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특성을 추가했을 때 역시 결정계수가 증가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남편의 경우 부모 역할로 인한 부정적인

〈표 4〉 남편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 결혼적응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T	b	β	T	b	β	T
부인의 연령	.18	-.04	-.38	.08	-.01	.18	-.02	-.00	-.05
남편의 연령	-.99	-.18	-2.26*	-.79	-.15	-1.87	-.75	-.14	-1.79
부인의 교육수준	-.10	-.01	-.17	-.24	-.03	-.42	-.06	-.01	-.10
남편의 교육수준	.98	.11	1.34	.78	.08	1.10	.66	.07	.93
부부의 소득	-.01	-.04	-.56	-.00	-.01	-.15	-.00	-.00	-.05
(부모로서의 긴장감)									
정서적 긴장감	-.50	-.13	-1.83	-.02	-.01	-.09	-.00	-.00	-.00
신체적 긴장감	-.31	-.10	-1.49	-.18	-.06	-.91	-.16	-.06	-.82
(본인의 특성)									
성역할태도				.45	.14	2.17*	.53	.16	2.50*
지배감				.86	.28	4.00***	.82	.27	3.83***
(배우자의 특성)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24	-.08	-1.21
배우자의 지배감							.38	.12	2.00*
R ²	.07*			.15			.17		
R ² 의 변화량				.08***			.02		

* p < .05 ** p < .01 *** p < .001

영향이 부인보다 크지 않으며 자신의 특성에 더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부모기 전이후의 취업부부가 느끼는 부모로서의 긴장감과 지배감, 성역할태도 등의 심리적인 특성 변수가 전이후의 결혼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모기로 전이한지 1년이하의 취업부부 284쌍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부모기 전이후의 취업부부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간의 차이가 난다. 즉, 결혼적응 점수는 남편이 높으며 긴장감은 부인이 정서적 영역과 신체적 영역에서 모두 높았다. 그리고 부부 모두 정서적 영역보다는 신체적 긴장감을 더 느끼는 편이었다. 또한 부인의 경우에 남편보다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지배감은 남편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

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전이기에서 부부간의 차이를 다룬 선행연구(고선주·옥선화, 1994; 1996)와 마찬가지로 부모기 전이 상황에서의 부부간의 차이를 다시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부인의 경우에 긴장감을 더 느낀다는 것은 Scott과 Alwin (1989)이 지적한대로 역할 경험에서의 남녀의 차이와 자녀와의 연관에서 여성이 더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여성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 것이 며느리로서의 역할이었고 그러한 역할에는 남아 및 다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포함되어 있었으니(유안진, 1990; 524-540),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남달리 더 크게 되어 그에 따른 긴장감도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부모기 전이후 취업부부가 지니고 있는 특성의 조합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변수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즉, 성역할태도는 유사성이 영향을 주지 못하며, 긴장감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지배감의 경우는 부부 모두의 지배감이 높은 경우에 가장 결혼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어져야만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남녀는 결혼을 통해 결합되어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이 새로이 형성된 가족에 각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히 이루어져 개인의 특성과 이런 특성들의 조합이 전체 가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를 계속해서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부부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배감이 큰 영향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 지배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이후 결혼적응이 높았다. 그러나 배우자의 심리적 특성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부부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부인의 경우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는 부인의 지배감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부인의 경우에는 지배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부부의 결혼적응 모두가 증진된다는 점은 앞으로의 부부생활교육 프로그램등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적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인의 지배감을 증진시키고 남편의 성역할태도를 근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부부간의 성역할태도 차이는 중요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소규모의 표본으로 분석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직업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모든 연구 대상이 취업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요인은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여기에서 다뤄진 특성변수들이 직업요인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도 앞으로는 밝혀져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긴장감이나 성역할태도와 지배감 이외의 다른 심리적 요인에 대

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기 전이후의 취업부부를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을 밝혔다다는 점은 이 논문의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부부교육프로그램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를 변화시키도록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심리적 특성 강화를 통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선주·옥선화(1993a) 부모기 전이에 관한 연구 I: 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1권 2호, 55-67.
- 2) _____ (1993b). 부모기 전이에 관한 연구 II: 부모기 전이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1권 3호, 127-141.
- 3) _____ (1994). 부모기 전이에 관한 연구 III: 부모기 전이후의 긴장감과 만족감. 대한가정학회지 32권 5호, 83-96.
- 4) _____ (1996).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 대한 이중 ABCX모델의 적용. 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131-157.
- 5) 김정원(198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적응에 관한 조사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 6) 대한가정학회(1990).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III. 아동학·가족학. 서울:교문사.
- 7) 박숙자(1991). 첫 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사회사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141-180.
- 8) 양명숙(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가족학논집3, 31-54.
- 9) 옥선화·정민자(1992).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 10)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11) 이기숙(1984).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적응의 변화. 부산여대 논문집17, 601-617.
- 12) 이미숙(1990).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성심여대 생활과학연구논집 10권

- 1호, 27-71.
- 13) 이숙현(1988). 한국근로자계층부부의 결혼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161-181.
- 14) _____(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 논집2, 1-27.
- 15) 최규련(1992). 가족생활 만족.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 285-315. 서울: 하우.
- 16) Adams, B. N. (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3ed)*. Chicago: Rand Mc. 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17)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29-40.
- 18) Belsky, J., Lang, M., & Rovine, M. (1985).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second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55-865.
- 19) Belsky, J. & Pensky, E. (1988).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133-156.
- 20)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 21) Cowan, P. C. & Cowan, P. A. (1988). Who does what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Indications for men, women, and marriage. *Marriage and the Family Review*, 12, 105-131.
- 22) Crouter, A. C., Perry-Jenkins, M., Huston, T. L., & Mchale, S. M. (1987). Process underlying father involvemen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31-440.
- 23) Grossman, F. (1988). Strain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the Family Review*, 12, 85-103.
- 24) Goldsteen, K., & Ross, C. E. (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1, 504-526.
- 25) Hobfoll, S. E., Ritter, C. & Shoham, S. B. (1991). "Women's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and their receipt of ai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32-341.
- 26) Kamo Yoshinori.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Family Issues*, 9, 177-200.
- 27) McCubbin, H. I., Joy, C. B., Cauble, A. E., Comeau, A. K., Patterson, J., M., & Needle, R. H. (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55-871.
- 28) Pistrnag, N. (1984). Women's work involvement and experience of new mother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433-447.
- 29)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30) Pleck, J. H. (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31) Ross, C. E., Mirowsky, J. & Huber, J. (1983).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mar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809-823.
- 32) Scott, J., & Alwin, D. F. (1989). Gender differences in parental strain: parental role or gender role? *Journal of Family Issues*, 10, 482-503.
- 33) Shelton, B. A. (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2), 115-135.
- 34) Spanier, G.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cc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38.
- 35) Wallace, P. M., & Gotlib, I. H. (1990). Marit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21-29.